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내달 2-3일 5·18민주광장 일대

예술의 날개로 꽃 피우는 평화 정신

‘전쟁과 평화’ 메시지 주제
협회별 10개 예술단체 참여
무용·연극·미술전시 등 다채



나빌레라 예술단 공연 모습

〈광주예총 제공〉

‘예술 장르 간 소통으로 평화의 메시지 전하다.’ 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광주예총)는 오는 9월2-3일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제13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예술의 날개, 찬란한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광주예총 10개 문화예술단체가 창작 예술작품 전시와 공연을 통해 다양한 가치의 조화와 문화 예술로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화로운 지구촌을 기원하는 공연(국악·무용·연극·연예·영화·음악협화)과 전시(건축가·문인·미술·사진협회) 작품을 한데 모아 광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개그맨 김종석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 무대는 쇼미더머니 10 우승자인 광주 출신 래퍼 조광일의 특별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운다.

2일 무용예술단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리는 아트페스티벌에서는 광주영화인협회와 광주음악협회의 콜라보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금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줄리브라스사운드의 연주와 함께 ‘전쟁과 평화’ 다큐멘터리 더빙쇼가 펼쳐진다.

아울러 우리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국악협회의 ‘청풍명월’ 무용과 빛고을영무장음악단 ‘년실’의 우도농악 무대를 즐길 수 있다.

둘째 날인 3일에는 광주무용협회의 화려한 퍼포먼스 공연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댄스컴퍼니 쉐넌프렌즈의 현대무용 ‘우리들의 블루스’, 전통 향기를 가득 품은 나빌레라 예술단의 ‘버꾸춤’, K팝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빛고을댄서스의 ‘The big question’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광주연극협회는 문화예술공방 바람꽃의 노래

음악극 ‘기억해주세요’ 공연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의 어린 시절과 해방 이후의 삶을 회상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광주연예협회는 대중가수 진국어의 ‘진짜 멋쟁이’, ‘영영’ 무대를 비롯해 스트리트퍼포먼스 댄스팀 ‘ILLBRO’ 초청 무대와 한국최고인기연예대상 신인배우상을 수상한 향기의 ‘토닥토닥’, ‘신미아리개고’ 등 공연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려인 마을 어린이 합창단과 다문화가족 사요썬어린이 합창단의 특별공연, 테너 윤승중과 첼리스트 안톤 콘트라텐코의 공연 또한 기대를 모은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전시 아트페스티벌도 준비돼 있다.

먼저, 광주전남건축가회가 현상공모에 당선된 16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투어를 진행한다. 양립동을 중심으로 건축물, 도시 등을 둘러보며 관객 소통을 유도한다.

광주문인협회는 회원 70여명이 기증한 창작 작품 도서전시회를 열고 사인회를 개최한다. 특

히 고려인마을 문화관 국가기록물로 전시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출신작가들의 작품 20여점도 선보인다.

‘픽셀아트 퍼포먼스’를 준비한 광주미술협회는 시민들과 예술작품 창작을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눈다. 핵심 키워드를 조형화한 청년 예술가 7명의 작품 위에 시민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붙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보는 시간이다.

광주사진협회는 참여 작가 40여명의 작품 전시를 통해 사진 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가족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장수·가족 사진을 찍어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사진 촬영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페스티벌 총감독을 맡은 차두옥 광주영화인협회장은 “민주·인권·평화를 상징하는 5·18 민주광장에서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광주예총 10개 단체가 전시·공연으로 하나 되는 의미있는 행사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저무는 구름 속으로 죽지가 소리 멀어져가네



장희구 박사 (469)
漢詩 향기품은 변안시조

굴원과 함께 한 음력 5월5일에 대한 고사다. 이는 중국에 대한 한 고사이고 우리에게도 월과 일의 양수(陽數)가 겹치는 날에 대한 의미를 크게 했다. 정월초하룻날인 1월1일과 제비들이 온다는 삼월삼짇날, 수릿날이라는 5월5일의 단옷날, 칠석일의 7월7일, 중앙절의 9월9일 등을 좋은 시절의 날로 생각했다. 우리 민족의 미풍에 의한 풍습이었다. 짙은 구름이 어둑히 먼 하늘에서 출렁이고, 강마을에는 비로소 박초풍이 불어온다고 하면서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저무는 구름 속으로 죽지가(竹枝歌) 소리 멀어져가네(競渡日有感)로 제목을 붙여 본 칠언절구다.

작가는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1538-1593)로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학자다. 1573년(선조 6)에 사간원정언에 임명됐다가 곧 홍문관부수찬으로 옮기고 병조좌랑으로 옮기는 등 승승장구를 이었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짙은 구름 어둑히 먼 하늘에 출렁이고 / 강마을에는 비로소 박초풍이 불어오는구나 // 초나라 강에서 강 건너는 경기 생각하는데 / 저무는 구름 속으로 죽지가(竹枝歌) 소리가 멀어져간다’라는 시상이다.

위 시의 제목은 ‘경도일 날에 느낌이 있어’로 번역된다. 경도일(競渡日)은 음력 5월5일을 말한다. 전국시대 때 초나라 굴원(屈原)이 5월5일에 멍라강에 빠져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 날에 용주를 타고 건너는 경주를 하여 굴원을 추모하면서 기념했다고 한다. 일설에는 월왕 구천이 오자서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시인은 선경의 밑그림은 여느 시인들의 시상에서처럼 가벼운 데서 끌어 들이

競渡日有感(경도일유감)
학봉김성일

어둑히 먼 하늘에 구름이 출렁이고
강마을 박초풍이 비로소 부는구나
초나라강 건너에는 죽지가 멀어지네.
愁陰漠漠漲遙空 水國初生舶趁風
수음막막양요공 수국초생박초풍
遙想楚江人競渡 竹枝聲斷暮雲中
요상초강인경도 죽지성단모운중



는 밑그림은 같아만 보인다. 짙은 구름이 어둑히 먼 하늘에 출렁이고, 강마을에는 비로소 박초풍이 불어온다고 했다. 박초풍은 계절풍으로 초여름에 매우(梅雨)가 내릴 때에는 반드시 큰 바람이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는 바람이라 한다.

화자는 짙은 구름이 하늘에서 출렁거린다는 멋진 시상으로 밑그림을 그렸던 시인의 시상은 품만해 보인다. 초나라 강에서 강 건너는 경기 생각하는데, 저무는 구름 속으로 죽지가(竹枝歌) 소리가 멀어져간다고 했다. 죽지가는 악부의 하나로 사천지방의 민가다. 당나라 유유석이 새 가사로 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남녀 간의 연정의 요소를 읊는다.

※한자와 어구
愁陰: 근심의 그늘. 근심하다. 漢漠: 막막하다. 漲遙空: 먼 하늘에 출렁이다. 水國: 강마을. 初生: 비로소. 舶趁風: 박초풍. 계절풍. // 遙想: 멀리 생각하다. 楚江: 초나라강. 人競渡: 사람들이(놀이) 강을 건너다. 竹枝: 죽지가. 남녀사랑시. 聲斷: 소리가 끊어지다. 暮雲中: 구름 속에 저물어간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광주문화재단 “똑딱똑딱, 무너진 성 지을 목수 찾아요”

내달 1일까지 어린이목수 모집

“예술가들과 함께 무너진 성을 다시 지어줄 어린이 목수 찾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오방성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목수가 돼 전설 속 성을 다시 지어보는 축제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9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 4-6학년 어린이 50명을 대상으로 영산강문화관 잔디밭에서 ‘어린이목수축제’를 진행한다.

‘어린이목수축제’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역예술가와 함께 어린이 스스로 짓고 만드는 노작예술 프로젝트다.

예술가와 목공기술을 통해 적정기술을 습득하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공동작업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어린이목수축제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광주문화재단 및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9월1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명 모집. /최명진 기자

천체 망원경 조립하며 과학자 꿈 키워볼까

내달 7-8일 광주과학관 야간천체관측

국립광주과학관은 9월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으로 별빛학교와 밤하늘 관측대장을 오는 9월 7일과 8일 진행한다.

7일 개최하는 별빛학교는 천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최대 3인까지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신기한 천문학 이야기, 계절별 별자리 찾아보기, 국내 과학관 최대 구경의 별빛천문대 주망원경을 활용한 천체관측 등을 진행한다.

8일 진행되는 밤하늘 관측대장은 초등생 3학년 이상 최대 3인까지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천체망원경 종류와 원리를 학습하고 천체망원경을 조립 및 조작해 자유롭게 천체를 관측하는 활동이다.

망원경과 휴대폰을 이용해 천체사진 촬영을 체험하고 촬영한 천체사진을 기념품으로 받아갈 수 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천체관측이 어려워질 경우 답소나인 망원경 미니버저 만들기 등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홍삼사랑(60ml) 30포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을 보증하는 바로 이 맛!

- 한약재, 첨가물 NO!
- 홍삼성분 다량 함유 ▶ 씹살한 맛
-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 6년근 1등삼 25지 ▶ 풋내가 없음
- 국산 홍삼만 사용 ▶ 느끼한 맛 없음
-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 깔끔한 맛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동별 매장 모집

자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고려홍삼.shop